



'제3회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빛을 주는 시각장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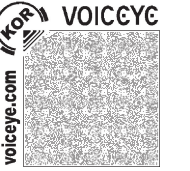
이웃을 내 몸 같이,

제호의 '빛'은 육안으로 보이는 빛을 넘어서 희망, 사랑, 행복을 뜻합니다.

## 한경직목사 기념상 시상식 및 기념 강연회

제 3회 한경직목사 기념상 시상식 및 기념 강연회  
강연주제 :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를 회상하여"





제호 격월호 「빛을 주는 실로암」  
 발행일 2016년 5월 30일 통권 125호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김은애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 880, 0500 FAX 02, 887, 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트위터 https://twitter.com/silwel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ets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홍보팀 02,880,0867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 2275, 6960

03<sup>+</sup>04  
 March April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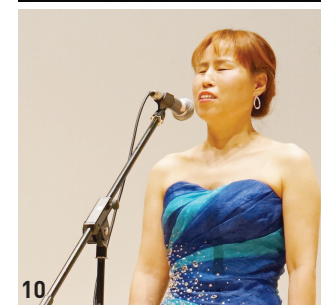
고맙다는 말하는 동안에는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_나를 키우는 말, 이해인

# Contents



- 04 **포커스**  
장애인의 날 행사  
제3회 환경직 목사 기념상 수상
- 08 **새소식**  
KBS국악한마당 관현맹인 출현 / 관현맹인 몽골공연
- 10 **희망나눔**  
'성악교실' 이용자 인터뷰 - 김미순 님
- 12 **사랑나눔**  
낭독 봉사자 - 조은지 아나운서
- 14 **해피스토리**  
2016년 3월~4월 사업 현장
- 18 **미리보기**  
6월~7월 행사 안내
- 19 **3, 4월 후원자명단**  
후원 안내

# 4월 20일, 실로암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복지관은 아침부터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로 물씬 다가올랐다. 장애인복지관답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복지관의 큰 기념일이다. 실로암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방법, 그 현장을 취재해보았다.

## Part 01

### SNS캠페인 / #타이밍모아

캠페인에서 빠질 수 없는 SNS캠페인! 실로암에서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0420할인정보 어플) 소셜 커머스 타이밍과 함께한 #0420타이밍모아 릴레이를 진행했습니다. 4월 20일을 기념하는 의미로 4시 20분에 핸드폰 화면을 캡처하거나 4시 20분을 가리키는 시계와 함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게시합니다. 게시할 때는 #0420타이밍모아를 해시태그하고 같이 참여할 친구 두 명도 태그해서 올렸는데요, 이번 캠페인에는 아이들가수 이기광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장애인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소셜커머스 타이밍은 캠페인 후원금을 카페모아에 기부하여 캠페인의 취지를 되살렸습니다.

**#0420 타이밍모아 릴레이**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그리고 난 그걸 볼 수 없네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작은 한이로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싶어도 번거로운가요!

**참여방법 (3/20~4/20)**

- 4시 20분에 핸드폰 화면을 캡처하거나
- 4시 20분을 가리키는 시계와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인스타그램에 #0420타이밍모아를 해시태그해서 올려주세요!  
같이 참여할 친구 두 명 태그도 필수!

한명이당 100원씩 후원금을 2명 4명 24명 20명 44명, 020할인정보 앱 타이밍에서,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만들고 커피를 내리는 '카페모아 생유관'을 드립니다.

※ 부득이하게 참여를 하실 수 없으셨다면?  
\*5천원 후원해 주시고 인스타그램에 #0420타이밍모아 해시태그와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후원금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쓰입니다.  
문의전화 577-81008-22104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 Part 02

### 오프라인 캠페인 / 서울여성플라자 / 복지관 / 누리축제



하나,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함께서울 누리축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생활용구 전시 부스를 설치하여 Korean JAWS, 룩스 데이지와 같은 보조공학기기와 흰지팡이, 확대경 등의 생활용구를 전시했는데요, 시각장애인의 생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둘,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한 위드 어스(With US) /4월 20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한 위드어스 행사에서 장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셋, 4월 20일 복지관 앞에서 인식개선 및 장애체험 캠페인 부스를 설치하여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실로암과 시각장애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Part 03

### 장애인참여 캠페인/한식조리콘서트 '요리시연회'

고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식조리콘서트' 교육생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한식조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레시피를 바탕으로 요리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펼쳐나가는 고소한 음식 냄새에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찾아 오셨습니다. 지역사회에 음식도 배풀고 시각장애인의 가능성도 보여준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Part 04

### 체험활동 / 역사체험 / 사회탐구 / 역장체험

하나, 아동교육지원사업 역사체험교실- 수원화성 및 화성행궁 설리반학습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맹학교 6학년 친구들과 수원화성으로 역사체험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둘, 사회탐구독서교실- 나비 한 살이 한국학생점자도서관 사회탐구독서교실에서는 시각장애학생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교과학습 주제를 촉각교구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나비 한 살이'를 주제로 나비의 성장 과정을 촉각교재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셋, 복지관에서는 봉천역과 연계하여 일일 명예역장 체험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분께서는 봉천역장님을 만나 시각장애인으로서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며 생긴 궁금증이나 건의사항을 말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지하철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등을 직접 경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가격할인 이벤트 / 카페모아 / 안마센터

시각장애인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카페모아와 시각장애인 안마센터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가격할인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4월 20일 하루 동안은 카페모아의 커피가 1,500원! 안마센터는 단돈 3만원! 파격적인 할인으로 매장은 북새통을 이뤘답니다.

기념한다는 건, 기억한다는 뜻이죠.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 주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체적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혹은 관계적인 장애인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용납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걷어가는 것, 아닐까요?

## Part 05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사랑의 빛, '한경직 목사 기념상' 수상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를 떠나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역사의 위인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가신 분입니다. 특별히 실로암안과병원은 한국교회 100주년을 기념하여 김선태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께서 1986년도에 함께 개원한 병원으로, 한경직 목사님의 뜻을 이어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안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하여 1997년도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를 설립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자신의 생애를 바치신 한경직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한경직 목사 기념상'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가 선정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되는데요. 김선태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의 사랑이 시각장애인의 삶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된다."라며 "한경직 목사 기념상이 앞으로 노벨상과 같이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상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상'의 후원금은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시각장애인 대학생 장학금'과 시각장애인 가족을 위한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 축제',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LED 조명 생산 및 판매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수상의 영광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와 동행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가 걸은 걸음대로

"눈덮힌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언젠가 뒷사람의 길이 되니라." 김구  
좋은 일 한다는 사람이나 기관이 변질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근본정신이 훼손되거나 초심을 잃었을 때, 변질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기에 모델이 중요하다. 중심이 흐트러질 때, 앞서 간 누군가를 보고 그의 발걸음을 좇으면 길을 잃을 걱정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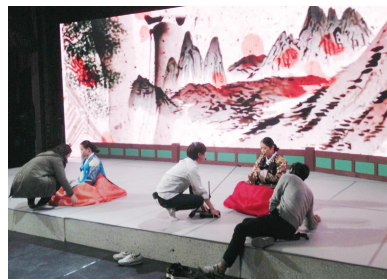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이사장 김선태 목사)는 슈퍼리어재단(이사장 김귀열 장로)이 제정한 '제3회 한경직 목사 기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4월 20일 영락교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봉사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심사위원들이 최근 5년간의 활동을 검토하고 향후 사역비전을 3차에 걸쳐 심사한 후 선정한 결과인데요.

'한경직 목사 기념상'은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앙을 후세에 기리고 이어가고자 제정한 상으로, 국내외 단체들 가운데 선교, 봉사, 교육 애국부문에서 기독교의 사랑정신에 입각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소리로 하나 되는 세계

# 2016년,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걸음



### KBS국악한마당에서

KBS 1TV의 '국악한마당'은 1990년부터 오늘까지 국악의 전통성을 계승하며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는 국내 최장수 국악 전문 프로그램이다.

2016년 4월 16일 토요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악 한마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관현맹인전통예술단. 국내 대표 국악방송답게 한국적인 멋을 살려 정갈하게 꾸민 무대와 은은한 조명이어서 관객을 압도하는 깊은 음색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는데요. 이번 공연에는 이진용, 문종석, 이현아, 박지선 단원이 대금독주 '다향', 시창 '관상음마'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 몽골, ASEM 정상회의를 기념하며

2016년,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새로운 발걸음이 기대된다. 그동안 세계 정상 무대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2016년 몽골 땅을 한국의 소리로 들썩이게 할 예정이다. 그 한류의 여정을 미리 스케치해본다.

2016년 제11차 ASEM정상회의가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됩니다. 주 몽골 대한민국대사관은 울란바토르 순회공연을 통해 ASEM 정상회의를 기념하고자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을 초청하였는데, 아셈(ASEM)회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의 줄임말로 아시아 21개국, 유럽연합 30개국, 제3그룹 2개국으로 총 53개국 정상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상회의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자리를 기념하며 개최되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공연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먼저, 몽골과 한국은 1990년 수교 이래 25년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양국 간 통상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적인 교류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류 문화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진정한 한류의 근간인 우리 소리를 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시각장애인 예술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 시대 궁중음악기관에서 연주하던 맹인악단을 재현하여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창단되었는데요. 조선의 세종대왕은 장애인을 불가능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특별한 재능 가진 존재로 바라보며 그들만의 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렇기에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선조들의 선진 문화를 보여주는 표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공연은 2016년 5월 23일(월)부터 30일(월)까지 몽골을 대표하는 몽골 국립오페라발레극장 및 국립교육기관 등 여러 곳에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SEM회의 관계자 및 몽골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본 공연은 한국의 소리를 세계 무대에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소리가 몽골에 울려 퍼지게 되어 큰 영광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연합을 상징하는 ASEM 회의를 기념하는 무대에 서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연주가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로 세상에 전해지길 소망한다."라고 전하며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몽골 공연에 대한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2011년 창단을 시점으로 200회가 넘는 공연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2013년 도연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캐나다 공연, 2014년도엔 미국 카네기홀 공연, 2015년도엔 시드니오페라하우스 공연 등 세계적인 공연장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치유와 감동의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전세계 관객들이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한 악기 선율에 감격하는 것은 그것이 삶이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5월, 몽골 땅에 들썩일 한국의 리듬이 힘찬 심장박동처럼 전해져, 듣는 모든 이에게 삶의 원동력으로 다가가길 기대합니다.

Interview

복지관 이용자 김미순 님

“살라, 꿈꾸라, 노래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_오프라 윈프리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김미순 님.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고 유방암 진단까지 받은 그녀지만, 그 무엇보다 그녀의 행복을 찾아갈 수는 없었다. 매일 꿈꾸는 그녀의 아름다운 삶을 만나보았다.

복지관 성악교실에 참여하고 계시네요. 노래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꿈이 가수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 꿈을 이룰 생각은 못했었죠. 물론 끼를 주체할 수 없어 크고 작은 무대를 찾아다니며 노래를 하곤 했어요. 그래도 그 뿐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졸업을 하고 잠깐 일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직접 아들 둘을 키웠어요. 지금이나 여러 제도나 도움이 많아 본인이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한 시름 놓았다 싶었는데, 2011년도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몸이 아프니까 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음악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성악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였어요. 희망이었죠. 물론 지금까지 혼자 불러오던 거랑은 발성 자체가 달라서 쉽지만은 않지만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작년 실로암콘서트에서도 공연을 하셨잖아요. 공연 얘기 좀 해주세요.

재작년 교육 수료식 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노래를 했었어요. 그게 제 나름대로는 처음 내본 소리였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어요. 그리고 참여한 작년 콘서트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서 노래를 부르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요. 의상도 다르고 화장도 하고, 저한테는 업그레이드된 무대경험이었어요. 아쉬웠던 건 독창이 아니었다는 거?(웃음)  
(이번에도 콘서트에 참여하시나요?) 안 그래도 담당선생님께서 참여 의사가 있는지 특별히, 독창으로 참여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하고 싶다고 했죠. 솔직히 자신감이 넘쳐서 독창을 하고 싶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다 같이 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소리에 묻어 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독창을 하면 제 소리만 들리니까, 물론 부담스럽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겠죠. 꼼꼼하고 세세하게 더 노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창을 하고 싶어요. 뭐,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올해 복지관 고객 모니터링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기관에 대한 애정과 관심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인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건, 실로암이 처음이에요. 오가는 교통도 불편하고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로암은 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일단 교통이 편리하고요. 무엇보다 실로암을 통해서 성악을 하게 된 것,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준 곳이고 그러다보니 저절로 애착이 생긴 거죠. 모니터링 활동은 재밌어요. 관심도 더 갖게 되고 배우는 부분도 많고요.

2011년도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이제 몇 달만 있으면 5년이 되네요. 올 가을 11월정도 되면 완치 판정을 받을 것 같아요. 힘들었죠. 시각장애에다 암이라니. 절망적이었지만 두 가지가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첫째는 믿음, 신앙적인 게 가장 컸고요. 둘째는 음악. 노래를 통해서 이겨냈어요. 음악이 없었다면, 저는 더 힘들었겠죠. 노래는 저에게 힐링이에요. 그냥 소리를 내는 자체, 연습하는 자체가 저에겐 치유이자 힐링이에요. 또 노래를 배우면서 목표가 생기고 노력해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렇게 극복했던 것 같아요.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환갑기념 개인음악회. 딱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10년 후면 61세, 환갑이 되거든요. 그 날, 지인들을 모시고 조촐한 개인 음악회를 열고 싶어요. 여러 장르의 음악, 가요든, 성악이든, 몇 곡 정도 정해서요. 별 건 아니지만, 현재 저의 꿈이자 목표예요. 10년 동안 그 목표를 향해서 더 공부하고 배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뭐,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아프기 전과 아픈 후에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원래도 긍정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아픔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하루만 사는 거죠. 내일은 오지 않을 것처럼.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면, 최선을 다해 살게 되고 그게 바로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 조은지 아나운서의 목소리 나눔 스토리



Interviewee

조은지 아나운서

누군가는 밥 만드는 봉사로, 누군가는 집 짓는 봉사로, 가지각색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한다. 목소리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낭독봉사자 조은지 아나운서의 나눔 스토리를 들어본다.

###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지입니다.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쇼호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 실로암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스무 살, 우연찮게 방송에 나온 낭독봉사활동을 보게 되었어요. 하고 싶었지만 크게 생각하진 않고 그렇게 지나쳤죠. 그 후에 영어 학원을 다니다가 함께 공부하던 어떤 분이 소개해주셨어요. 본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서, 그 곳이 바로 실로암이었죠. 당시에는 우연이라 치부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연이 아닌 운명적 만남이었던 것 같네요.(웃음)

### 봉사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시작이라, 2010년도 겨울에 시작했으니 어언 6년이다 되어가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군요. 처음 시작할 땐, 일반 소설책들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자리가 잡히고 '좋은생각'이라는 월간지를 맡아서 하게 되었죠. 한 2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도 많이 들었네요. 지금은 '좋은생각' 정기 구독자가 되어 집에서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젠가 한번, 복지관 로비에서 시각장애인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혹시 '좋은생각' 읽으시는 분 아니냐고,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다고요. 사실 습관처럼 낭독봉사를 하면서도, 과연 누가 찾아서 들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직접적인 봉사가 아니니까요. 그런 저를 부끄럽게 했고 봉사를 임하는 자세를 변하게 해준 일례였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반응은 없더라도 누군가를 위한 마음은 결국 전해지는 것 아닐까요?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로비에서 인자한 웃음으로 맞이해주시는 경비아저씨도 기억에 남아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들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좋겠어요. 돌아가실 땐,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 봉사하며 생긴 변화가 있다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읽은 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가서 송출했어요. 책임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되었죠. 낭독봉사는 그렇게 저의 삶이 되었어요. 봉천역에 내리면 저희 복지관을 다니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분도 이젠 먼저 가서 인사하고 복지관까지 함께 온 적도 있어요.

### 직업이 아나운서시잖아요. 둘 다 목소리로 하는 업무인데, 봉사활동과 직업 간의 연계성 혹은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도움이 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점점 소문이 많이 나서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일부러 찾아온다는 말을 듣기는 했죠. 낭독봉사를 하면서, 특히 '좋은생각'을 읽으면서, 감정을 실어서 읽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을 듣는 분들도 동일하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다보니 실제로 운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서 업무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연스럽게, 감정을 넣어서 대화하듯이 할 수 있었어요. 봉사활동이 업무적인 부분에게도 도움이 되었던 거죠.



낭독봉사자 조은지 아나운서



# 복지관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01 상반기 텐덤바이크교실**  
상반기 텐덤바이크교실이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인천 아라뱃길 등에서 외국인 자원봉사단체 빈서울과 일반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총 4회 진행하였습니다.
- 02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이 연세대 (송도), 송실대 등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03 무료안과 검진\_04.06**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안과 검진이 실로암안과병원과 연계하여 복지관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04 양블랑 물품 전달식\_04.19**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인 양블랑기업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을 통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물품(물티슈)을 기증하였습니다.
- 05 키르키즈공화국 국회의원 기관방문\_04.26**  
키르키즈공화국 Dastan Bekeshev 국회의원과 노동사회개발부 Zuurakan Kadenova 차관은 복지관을 방문하여 기관의 사업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협력관계를 도모하였습니다.
- 06 이료심화교육 워크숍\_04.03~04**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료심화교육 워크숍이 1박 2일 간 온양 온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학습지원센터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01 관현맹인전통예술단 공연활동**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중안대학교병원, 전주&경북 지역, 송례초등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공연활동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시각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02 제1차 북콘서트\_03.26**  
김동화 강연자를 초청하여 경제 및 금융관념의 중요성에 대한 도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03 음악재활아카데미-서양음악교실**  
다양한 음악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시각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재활을 돕고자, 드럼교실, 바이올린교실, 보컬교실, 색소폰교실, 성악교실, 일렉기타교실, 통기타교실, 플루트교실, 피아노교실, 하모니카교실 등 10개의 서양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04 집합정보화교육**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타자연습교육부터 시작하여 원도우길잡이, 인터넷 길잡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오피스 활용, 자격증 대비교육, 아이폰 활용교육 등과 같이 일상생활 및 자기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설리번 학습지원센터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01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자료개발사업 품평회\_03.09**  
품평회에서는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해 제작한 촉각교육교재를 소개하고 활용방법을 공유하였으며 신규 제작된 촉각교재를 소개하고 배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2 지역사회 점자교실 전자도서 교육**  
한국학생점자도서관에서는 지역사회 봉사단체인 청사모 2기, 배화여고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전자도서 제작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시각장애가족 야외체험\_04.09**  
시각장애가족 야외체험활동이 여의도 봄맞이 가족사랑 페스티벌에서 진행되어, 가족 케익 만들기, 풍선아트,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가족 놀이에 참여하며 가족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04 '청운효자동 봄맞이축제' 촉각전시\_04.16**  
'제8회 청운효자동 봄맞이축제'에서 '찾아가는 전시'를 진행하였으며, 전시를 통해 촉각교재를 비장애인에게 소개하고 점자체험을 진행하여 점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근로사업장

**01 직업훈련사업**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직종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공과로는 컴퓨터활용전문가 양성훈련, 바리스타카페창업훈련, 안마지압창업훈련, 베이커리창업훈련, 장애인점역교정사 양성훈련 등이 있습니다.

**02 이동 직업평가**  
직업평가센터에서는 청주맹학교, 광주안마수련원 등 여러 지역 및 기관을 순회하며 수련원들을 대상으로 직업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03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저소득,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울 내 서남권지역의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시각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2016 CSUN 국제 보조공학 관련 세미나 참가



CSUN Conference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국제 장애인 보조공학 컨퍼런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서 매년 3월 경 열립니다. CSUN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유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에서 매년 주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컨퍼런스 세션발표 및 전시회(Exhibi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컨퍼런스는, 의사소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저시력, 청각장애, 신체장애, 장애인 접근성 등 모든 장애 구분을 포함한 폭넓은 주제와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장애인 보조공학 및 접근성과 관련한 최첨단 신기술 소개, 보조공학 관련한 사례 발표, 접근성 강화 방법, 정책 관련 토론 등 전 세계에서 모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제 당사자들이 모이는데요. 실제로 보조공학 제품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되어 있어 매년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컨퍼런스입니다.

저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도 빠질 수 없겠지요? 지난 3월, 관련 부서 직원들이 함께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보조공학기제품들을 보고 시연해보며, 현 보조공학기기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5월 실로암아카데미를 통해 내부 직원 교육을 진행하여 컨퍼런스 내용과 트렌드 동향을 공유할 예정인데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보조공학 분야가 나날이 발전해가길 기원합니다.

